



"은행나무도 마주 서야 연다"

뜻: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고 자주 만나야 정이 들고 관계가 깊어진다는 뜻이에요.

이 속담과 관련 있는 말 관계 · 교류 · 결실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은	행	나	무	도					
마	주	↓	서	야	↓	연	다		

2단계 따라 쓰기 열은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은	행	나	무	도					
마	주	↓	서	야	↓	연	다		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 [ㅇㅎㄴㅁㄷ] [ㅁㅈ] [ㅅㅇ] [ㅇㄷ]

웹에서 보기

